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구 슬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구 슬

인 준 서

송구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회불안의 보호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등 총 478명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사와 빈도분석,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사회불안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이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자 중 여성에게서는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 모두 조절효과가 있었고 남성에게서는 단지 애착회피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인기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성인애착의 안정

성이 두 변인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다룰 때 성인애착을 보호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방임, 사회불안, 성인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적 학대 6
- 2. 사회불안
..... 8
- 3. 성인애착
 - 1) 애착 10
 - 2) 성인애착 13
- 4. 정서적 학대,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 1)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 17
 - 2)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18

III.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20
- 2. 연구 대상 22
- 3. 측정 도구
 - 1) 정서적 학대 척도 24
 - 2) 사회불안 척도 27

3) 성인애착 척도	28
4.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30

IV.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31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33
3.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	34
4.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1)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35
2)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36
5.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1) 성별에 따른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37
2) 성별에 따른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39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및 논의	41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4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23
<표 2> 아동기 외상 질문지 구성 내용 및 신뢰도	25
<표 3>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척도 구성 내용 및 신뢰도	26
<표 4>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 구성 내용 및 신뢰도	28
<표 5> 친밀관계 경험검사 구성 내용 및 신뢰도	29
<표 6>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32
<표 7>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불안,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관관계	33
<표 8>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35
<표 9>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36
<표 10> 애착불안의 조절효과(남성)	37
<표 11> 애착불안의 조절효과(여성)	38

<표 12>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남성)	39
<표 13> 애착회피의 조절효과(여성)	40

그림 목 차

<그림 1> 자기-타인 이원 모형에 따른 성인애착 4유형	16
<그림 2> 연구 모형	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과 지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를 개인 내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한 개인의 성장을 저해 하는 위험요인이다. 실제로 아동기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심리적인 차원에서 뚜렷하게 더 많은 외현화 문제와 내현화 문제를 갖는다(De Paul & Arruabarrena, 1995). 예컨대 아동기 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자살 경향 및 무기력을 호소하며(Arta et al., 2007) 대인관계상에서 재희생(revictimization)을 경험한다(Yehuda, Spertus, & Golier, 2001). 그리고 학대 경험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대인간 문제 해결력이 낮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Haskett, 1990).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를 사회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Egeland, 2009). 아동 학대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을 체결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를 공식적으로 수립 하게 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한국은 1991년에 협약에 비준 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립과 관계 기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와 개입을 위한 행정 체계를 구성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동 학대의 여러 하위유형 중 신체 및 성적 학대와 같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적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내의 아동 학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 다루어온 탓에 신체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즉시적인 신체상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온 것이 사실이다(이유경, 2006). 비단 국내뿐 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신체 및 성적 학대와 비교하였을 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출판이나 임상에서의 연구 또한 미미하였다(Behl, Conyngham & May, 2003).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매스미디어 역시 학대 아동을 다루는데 있어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보다 신체 및 성적 학대와 같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함으로써 물리적 학대에 관심이 기우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Egeland, 2009).

이러한 현실에서, 전체 아동 학대 발생 건수에서 신체 및 성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보건복지부, 2006)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서적 학대의 증가 원인은 사회 인식의 부재뿐 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 간 학대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채혜정(1993)에 따르면, 부모와 아동 간에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 학대라고 지각하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아동학대로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아동은 학대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인 아동 및 청소년은 정서적 학대를 신체적 학대 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학대 유형으로 인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서적 학대는 다른 유형의 아동 학대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는 다른 유형의 아동 학대만큼 크다(Hart & Brassard, 1987).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신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 및 성적 학대 없이 정서적 학대가 단독으로 일어났을 때

에도 정신 병리에 대한 예측변인이며(Gross, 2000), 더욱이 성, 수입, 부모의 알콜중독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적 증상을 초래 한다(Wright, 2009).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 병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연구가 학대 당시의 결과만을 주로 다루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발달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Editorial. Child Abuse & Neglect, 2009). 따라서 정서적 학대를 다른 유형의 학대와 분리하여 연구해야함은 물론,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학대 당시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성인기의 불안, 우울, 대인간 예민성, 낮은 자존감, 해리, 경계선 성격장애, 귀인양식 등을 예측하는 요인이다(Braver, Bumberry, Gross & Keller, 1992; Braver, Bumberry, Green & Rauson, 1992; Green, & Rauson, 1992; Briere & Runtz, 1990; Briere & Runtz, 1988; Gross & Keller, 1992; Moeller, Bachman & Moeller, 1993). 특히 대인 관계 측면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자체의 어려움과 더불어 반항, 적대감, 불신 경쟁 성향 및 사회불안 등 대인 관계상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장혜인, 2003; 박미란, 2003 ;채은영, 2001; Straus, 199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정신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기 대인관계 경험이 성인기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Bretherton et al., 1990)에 주목하였다. 정신 병리에 관한 대인간 모형(interpersonal model of psychopathology(Segrin, 2001))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과거에 타인이 자신에게 대해왔던 방식대로 타인들이 현재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대할 것이라 예상하고 생애 초기에 행했던 대처 방식을 토대로 현재의 행동 전략을 구상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생애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훈습한 대처 방식으로 차후 대인 장면에서 반응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병리의 본질이 대인간(interpersonal)장애인 사회불안을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장기적인 결과라고 가정 하였다. 사회불안의 속성 자체가 한 개인의 불안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양육자와의 "병리적 관계 환경(Chiccheti & Toth, 2000)"이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사회불안과 관련 있는 변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상에서 적응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불안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회불안에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조절하는 심리적 변인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인의 역할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사회불안과의 관계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을 고려할 수 있다. 성인애착이란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성인이 심신의 안정감을 위해 소수의 친밀한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성인애착의 근간이 되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안정애착 형태는 성장기와 성인기를 통틀어 안정된 대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발달 과정 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와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작동 되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 하게 되고 이것을 대인 상황에서 활성화하기 때문이다(Bretherton, 1990).

성인애착이 애착과 구별되는 점은 과거 영아기에 주된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의 또래 및 교사 등과의 관계와 현재의 동료 및 연

인, 배우자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Hazan & Shaver, 1987) 더욱이 애착 유형은 주된 양육자의 양육 패턴에서의 변화나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친구, 애인,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 가능 하다 (Fox, 1995; Buelow, 1996; Egeland et al., 2000).

안정애착 유형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하며 타인의 의도를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갖는다. 반면 불안정애착 유형의 경우 안정애착 유형에 비해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한 심신 질환의 수준이 높다(Hazan & Shaver, 1990). 안정애착 유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불안정애착 유형은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사회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애착 유형은 불안애착이 지배적이며 애착의 유형은 사회불안의 증상을 느끼는 정도와도 관련이 있었다(Enga, 200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인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관계 내에서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 둘 사이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성인애착을 가정 하였다. 만일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면 사회불안에 미치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효과가 성인애착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라는 병리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도 성인애착이 안정되어있다면 대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라는 위험 요인에 대해 성인 애착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기체에 대한 통찰을 통한 치료적 개입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의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발달적인 측면에서 아동에게 취약성을 야기하며 심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다(McGee, 1991). 고성혜(1992)는 “아동을 정서적, 지적(知的) 불구로 만들고,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주 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패턴”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정의 하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란 습관적으로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극단적인 언어 공격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해치며 경멸 및 모욕과 함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신혜영, 2003).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차별이나 멸시, 증오, 위협, 그리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박은숙, 1999)”이 있다. 그리고 Hart 와 Brassard(1991)는 정서적 학대에 언어적 공격, 위협, 고립(isolation), 착취, 정서적 반응 거절 등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정서적 학대에 거부, 위협, 감금, 착취, 모욕, 타락, 정서적인 반응 거부를 포함 하였다(Garbarino & Garbarino, 1986; Garbarino, Guttman, Seeley, 1986). 구체적인 행위를 예로 들면 정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빈정거리고 소리 지르고 기를 죽이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거나 부모가 아동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요구적인 기대를 갖고 있거나 아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 등이 있다(Editorial , Child Abuse & Neglect, 33, 2009).

성장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은 자신을 못되고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고 그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고, 타인의 느낌을 거의 공감

하지 못하고 사회적 기술 또한 부족하다(장조현, 2004). Brenner(1984)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고 자기 파괴적인 동시에 수동적이기도 하여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부정적이고 불안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과 태도를 보인다(박혜신, 1996). 그러한 부정적 결과는 비단 정서적 학대를 받은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Ferguson등(1997)에 따르면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받은 성인 여성에서 불안, 우울 및 해리 증상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확연히 높았다. 그리고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 하였을 때 성인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우울, 대인간 예민성, 낮은 자존감 및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였다(Braver et al.,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현실(채혜정, 1993)과 한국에서 아동과 주된 양육자 간의 관계가 ‘가정사’라는 배타성을 가진 현실을 감안하면,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위협적인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타인이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비단 국내에서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 학대 중에서 가장 만연된 것이지만 은폐되는 경향을 보인다(Barnet et al., 2005).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정서적 학대가 물리적인 학대와 비교하였을 때 예방과 제도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개입이 어려워 장기간 고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학대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 요인일 수 있다.

2. 사회불안

사회불안의 DSM-IV-TR 상의 공식 진단명은 사회공포증이다. 사회불안은 의미에 있어 대인 불안, 사회공포증, 대인공포, 수줍음 등의 용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재원, 2006; 한혜림, 2004). 사회불안은 “실제 혹은 상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을 말한다(Leary, 1982). 그리고 Clark와 Arkowitz(1975)는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경향성과 사회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라고 하였다.

사회불안은 광범위한 사회문제이다. DSM-III-R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사회불안 평생 유병율은 13.3%이다(Kessler et al., 1994). 그리고 성인의 15-20%가 사회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Pilkonis et al, 1980). 사회불안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일생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 경향을 갖는다(Kessler et al., 1995; Weiller et al., 1996). 외국의 경우 평균 발병 연령은 11.3-12.3세(Kazdin, 1992)이고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평균 발병 연령은 19.5세이다(호유나, 2004). 사회불안의 발병 시기나 유병율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회 불안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대개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타나는 증상도 내성적이거나 수줍다는 성격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간과하기 때문이다(노향희, 2008). 더욱이 정신과적 불편을 드러내기 꺼리는 한국의 문화를 감안하면 사회불안은 실제 보고된 것 보다 더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상이 타인에게 좋게 각인되기를 강하게 원하지만 실제 자신의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피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과도

하게 참아낸다.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 약하고 무능하다고 평가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염려는 결국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 대인 장면에서 당혹감에 빠뜨리는 역할을 한다(APA, 1994; Clark & Wells, 1995). 실제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과 공개된 상황에서 과제 수행 시 생리, 인지 및 행동 상에서 불편함을 겪는다(Beidel et al., 1985). 생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불안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생리적인 각성을 보이는데(Heimberg et al., 1990), 생리적 각성이 비단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불안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각성 수준이 월등히 높고 그들은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Nichols, 1974). 이로 인하여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알콜이나 약물 복용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Pilkonis et al., 1981). 행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사회적 상황을 피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안전행동”이라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Clark & Wells, 1995). 김은정(1999)은 “시선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계속 체크 한다”, “말하기 전에 미리 할 말을 되뇌어본다”, “말을 짧게 한다” 등을 안전행동 목록에 포함하였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타인의 평가에 대해 파국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Turk, 2001). 예컨대 “나는 잘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등이다. 이러한 사고 패턴이 대인상황에서 작동하게 될 경우 실제와는 상관없이 대인관계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불안은 아동과 성인을 막론하고 만성적인 손상을 야기하고 이러한 좌절은 일상에서 중요한 직업이나 학업,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기능에 있어 성취를 저하시킨다.

3. 성인애착

1) 애착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서로의 정서적 유대를 지속 시키려는 경향성을 말한다(Bowlby, 1969). 이러한 경향성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적응과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비록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심리학적 이론이 각각의 이론적 배경을 막론하고 한 개인과 주된 양육자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살펴보면, Freud는 영아의 구강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인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심리사회적인 견지에서 발달을 조망한 Erickson은 급식의 중요성에 더하여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주된 양육자의 반응성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학습 이론가들은 일차적강화원인 급식과 더불어 주된 양육자와의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이 이차적강화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최경숙, 2006).

Bowlby(1969)에 따르면, 애착 관계에 있는 양자는 잦은 상호작용을 지향하며 물리적인 거리 및 심리적인 거리에서 근접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애착 대상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대상이다. 애착 대상인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울고 매달리는 12개월의 영아는 선택적인 대상과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애착의 본질에 대한 좋은 일례이다.

애착은 보통 생후 6-12개월 사이에 형성 된다. 이는 영유아의 생존 기회를 증가 시킨다(Bowlby, 1969 ; Morton et al., 1998). 이때 애착 대상인 주된 양

육자는 영유아에게 있어 안전기반(secure base)의 역할로 영유아가 환경 탐색을 하다 되돌아갈 때 언제나 수용해 주고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된다(Ainsworth & Bell, 1970). 다시 말하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애착의 대상이다(Morton et al., 1998).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영유아는 양육자를 안전기반(secure base)으로 하는 행동 통제체계를 작동 시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환경을 탐색하게 된다(Ainsworth, 1982; Perry, & Bussey, 1984 ;Watkins, 1987; Marvin & Stewart, 1990).

개체가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할 때 안전기반(secure base)으로서의 애착 대상이 얼마나 민감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애착의 질이 결정된다(Shapiro, 1999). Ainsworth(1978)는 12개월의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애착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 애착의 질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낮선 상황”이라는 구조화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애착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전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안전기반 행동을 조직화 하는지를 측정한다(Golberg, 1991). 그 절차를 살펴보면, 영아와 양육자는 낮선 상황에 배치된다. 그 둘은 장난감이 있는 실험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한 후, 짧은 시간 동안 격리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행동 특성 즉, 환경 탐색 활동, 타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양육자와 재결합에서의 보이는 반응을 통해 애착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측정된 영아의 접촉추구, 접촉유지, 회피, 저항, 찾기, 원거리 상호작용을 토대로 애착의 유형을 안정애착 유형, 불안정/회피애착 유형, 불안정/저항애착 유형으로 나누었다. 안정애착 유형의 경우, 영아는 낮선 상황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된 양육자 부재에도 새로운 애착 대상을 찾아낼 줄 알았고 새로운 애착 대상으로부터 쉽게 안정을 얻어 자유로운 환경 탐색 활동이 가능 하였다. 또한 양육자와의

재결합 시 매우 반가워하며 달려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불안정/회피애착 유형으로 양육자와 격리 되었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재결합 시에 접촉을 피했다. 이러한 애착 형태를 가진 영아는 양육자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낯선 이에 대해 불안을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불안정/거부 애착 유형은 주된 양육자와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탐색 활동을 포기한 채, 주된 양육자에게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분리 되었을 때 심하게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합 시에는 주된 양육자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주된 양육자가 접촉을 시도하면 거부하는 양가 반응을 보였다.

애착 유형에 따라 주된 양육자의 특징 또한 구별 되었다(Ainsworth, 1979). 안정애착을 가진 영유아의 양육자의 반응성은 민감하고 적절하다는 특성을 지녔다. 불안정/회피애착을 보이는 영유아의 양육자는 영유아에게 대하는 행동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경직되어 있고 거부적이며 자기중심적 행동 특성을 지닌 양육자 집단과 영유아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자극을 주는 양육자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Isabella & Belsky, 1991). 마지막으로 불안정/저항애착 유형을 가진 영유아의 양육자는 영유아에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애정적인 반응과 무반응을 보이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대했다.

Bowlby(1969, 1973, 1982)에 따르면, 애착의 유형은 위와 같이 영유아와 양육자 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및 사회에 대한 표상을 결정하여 궁극적으로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에게 있어 주된 양육자와의 생애 초기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형태는 차후 대인 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기제는 영유아가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양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틀로 작용하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키기 때문이다(Bowlby, 1973). 애착 대상인 양육자가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지지적인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영유아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표상을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게 되고 동시에 애착 대상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발달시킨다. 이와는 다르게 애착 대상이 비 반응적이고 거부적일 경우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내적 표상을 만들고 이와 동시에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틀을 통해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은 생애 초기 뿐 아니라 이후의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경환, 2002).

2) 성인애착

근간, 초기 애착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 애착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는 애착을 영유아와 양육자간의 유대관계로 국한시켜왔으나 현재는 전 생애 동안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장휘숙, 1990). 이러한 견지에서 대두된 개념이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다. 성인애착이란 성인이 신체 및 정신적 안전감을 위해 소수의 특정 개인과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성인애착은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가정하는 생애 전반적인 유지성에 기초하고 있다(Ainsworth, 1989; Bretherton, 1992).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영유아기 애착 유형 분포와 성인의 애착 유형 분포가 유사 하였다(Kirkpatrick & Davis, 1994).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델은 영유아기에 조직화되어 차후 대인 장면에서 작동하여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때 내적 작동 모델이 가정하는 작동(working)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애착의 역동적인 측면과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2006, 송은혜). Pearson등(1994)등에 따르면, 초기 애착의 유형은 성장함에 따라 특정한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영유아기 애착과 성인애착 모두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둘을 구분할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상호작용의 방향성이다. 영유아기에 일어나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미성숙한 신체 및 심리 발달 상태를 고려할 때 양육자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일 방향적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성인 애착은 개인과 애착 대상간의 상호작용이 영유아기 애착에 비하여 양 방향으로 이루어진다(Berman et al., 1994; Feeney, 1999; Fisher et al., 2001). 따라서 애착의 안정성은 주된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 변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친구, 애인,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 가능 하다(Fox, 1995; Buelow, 1996; Egeland et al., 2000). 다시 말하면, 생애 초기에 주된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였다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교사, 또래, 성인기의 연인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안전 기반(secure base)과 환경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안정애착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Hazan & Shaver, 1987). 실제로 Berscheid(1993)에 따르면 성인의 애착 유형을 반복 측정한 결과 1년 내 애착 유형 변화의 비율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애착 연구에서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고적 보고를 통해 애착 유형을 결정하는 것 보다 최근 애착 대상과의 애착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작동하고 있는 내적 작동 모델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안정 애착 유형은 탄력적인 인지 체계를 통해 대인 및 정서 경험에서 적응적이다(Bartholomew & Shaver,1998 ; Cassidy & Berlin, 1994;Collins & Read, 1990; Coopers et al.,1998). 그러나 불안정 애착형태를 지닌 이들의 인지 체계는 불안으로 인해 자원 가용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의존형의 경우 정서적 고통

이 크고 갈등 유발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거부형의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면서도 정서적 고통은 보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애착 유형에 따라 대인 관계 양상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Bartholomew & Shaver, 1998 ; Cassidy & Berlin, 1994).

성인기 애착 유형은 세 가지의 애착 유형 (Hazan & Shaver, 1987)과 네 가지의 애착 유형(Bartholomew & Horowitz, 1991)으로 나누는 체계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다(한수정 등, 2002). 성인 애착의 3범주 유형은 초기 애착 유형에 관한 Ainsworth(1978)의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 안정형(secure), 불안/회피형(anxious/avoidant), 불안/양가형 (anxious/ambivalent)이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3범주 유형의 경우 후속 연구에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Fenny & Noller, 1990) 영유아의 애착 유형과는 다른 성인애착 범주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도 되었다(신지옥, 2006).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1978)의 애착 이론을 근거로 자기-타인 이원 모형(4범주 모형)을 구성 하였다. 자기-타인 이원 모형에 따라 어느 애착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와 "다른 사람은 믿을 만한가?". 이때 자기의 표상과 관련된 애착 측면은 애착불안(attachment/anxiety)이고, 타인의 표상과 관련된 측면은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이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타인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지나치게 원한다.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양상이 자신의 취약성을 부인하고 친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자기와 타인의 두 차원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 하여 이에 따

라 나타나는 개인차를 통해 안정 애착 유형(secure type; 자기/긍정, 타인/긍정), 몰입(의존)애착 유형(preoccupied type; 자기/부정, 타인/긍정), 거부애착 유형(dismissing type; 자기/긍정, 타인/부정), 그리고 두려움 애착 유형(fearful type; 자기/부정, 타인/부정)으로 분류한다. 이때, 자기와 타인에 대한 경험이 전 생애 동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가지 애착 유형 중 어느 것에 분류되는가는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 자기- 타인 이원 모형에 따른 성인애착 4유형

		자기	
		긍정	부정
타인	긍정	안정형 (secure)	몰입(의존)형 (preoccupied)
	부정	거부형 (dismissing)	두려움형 (fearful)

4. 정서적 학대,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1)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

Jergild(1982)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과 애정을 통해 성장한 아동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일반화 되어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됨과 동시에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러나 거부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불안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회피적이며 자기 방어가 심해질수록 외부와 담을 쌓게 된다. 실제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에 더 많이 노출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Alden, Mellings, Taylor, & Laposa, 미출간; Wright et al., 2009 재인용).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덜 따뜻하고 지지적이지 않고 거절 경향성을 가졌다고 지각하였으며 사회불안을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치심을 자기 규율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Bruch & Heimberg, 1994;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Olwels(1984)는 부모의 거부적이고 냉담한 양육태도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 간 피공격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아동에 대한 거부적이고 냉담한 양육태도의 극단적인 형태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가정할 때 (Burgess & Conger, 1978; George & Main, 1979),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피공격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공격성은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대인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 위축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성인의 대인관계 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riere & Runtz, 1988). 부모 등 중요한 타인에 의한 반복적인 거절 경험은 자신의 대한 평가에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불완전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무기력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Kolk, 2001). 그리고 성장기에 부모가 자녀의 낮은 수행에 대해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대하면 사회불안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인, 2003).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경험과 대인 불안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아동 학대의 여러 하위유형 중 대인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박상민, 2007).

2) 성인애착과 사회불안

보호요인이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설령 생애사적 위험요소에 노출되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완화시킴으로써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박현선, 1998).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아가 애착 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안전감의 여부, 즉 안정애착은 애착 대상인 주된 양육자의 실제 근접성과 가용성에 의해 결정 된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양육자의 실제 근접성이나 가용성에 대한 추구는 자신이 필요할 때 지지를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체 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Weiss, 1982). 이러한 안정애착 속성은 비단 한 개인과 양육자간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 뿐 아니라 또래 관계나 기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케 한다(Allen & Kupermine, 1995). 실제로 Collins등 (1990)에 따르면, 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성인은 대인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 주장적인 것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의존성이 높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Mikulincer(2003)는 안정 애착 유형의 애착 대상이 자신에게 반응적이고 지지적이라 지각하기 때문에 현재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이 낮고 타인에게 노출될 상황이나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질 가

능성이 높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이 높고,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수줍음도 더 적다고 보고되었다(Armden & Greenberg, 1987; Bell et al, 1985; Lapsley et al, 1990; Kenney & Donaldson, 1991).

그리고 애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양상도 다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적인 친밀감의 수준이 낮았고 애착 유형에 있어 안정애착 유형보다는 두려움애착 유형이나 몰입형애착 유형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는 애착안정성이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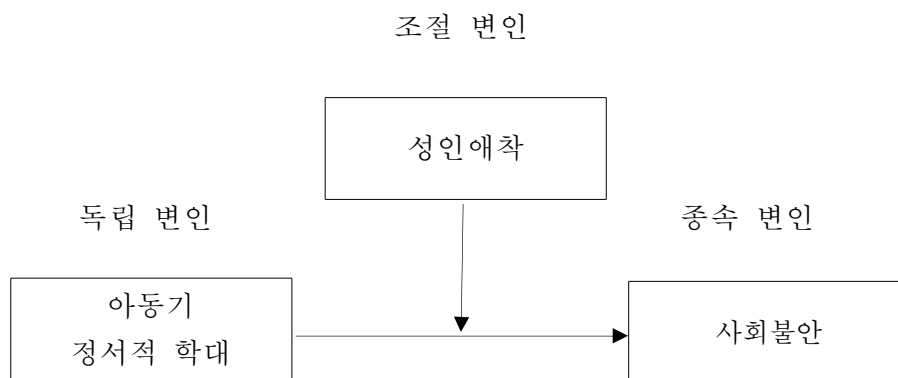
Ⅲ .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사회불안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성인애착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정된 변수들을 통해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불안, 성인애착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성인애착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S여자 대학교, S대학교, M 대학교 및 경기도 소재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등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50부를 배부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수업 시간에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 하였고 성인의 경우 연구자로부터 설문지 배부와 수거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연구 협조자 2명에 의해 배부 및 수거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총 509부 중 응답이 누락됐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31부를 제외한 478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주된 양육자의 직업(응답자 만 18세 이전),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응답자 만 18세 이전)등을 조사 하였다. 총 478명 중 남자는 181명(45.2%), 여자는 297명(54.8%)을 차지 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9세에서 25세까지가 343명(71.8)으로 가장 많았고 26세에서 30세가 83명(17.4%), 31세에서 35세가 20명(4.2%), 41세 이상이 18명(3.8%), 36세에서 40세가 1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자세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 표 1 > 에 제시 하였다.

< 표 1 >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478)	%
성별	남	181	37.9
	여	297	62.1
연령	19세-25세	343	71.8
	26세-30세	83	17.4
	31세-35세	20	4.2
	36세-40세	14	2.9
	41세 이상	18	3.8
응답자 직업	대학생	357	74.7
	대학원생	46	9.6
	자영업	4	.8
	직장인	40	8.4
	전문직	24	5.0
	주부	7	1.5
주된 양육자의 직업	자영업	102	21.3
	직장인	111	23.2
	전문직	38	7.9
	주부	156	32.6
	기타	54	11.3
	무직	17	3.6

3. 측정 도구

1) 정서적 학대 척도

(1)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를 사용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유경(2006)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이 만 18세 이전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타당도 척도 3문항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1점(전혀 없었다)에서 4점(자주 있었다)의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1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 하였다. 정서적 학대 문항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나를 불렀다(예 : 똥뽕이, 멍청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방임 문항은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역 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 기준으로 10점에서부터 4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질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경험에 많이 노출 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75(Cronbach's α), 방임의 경우 .93(Cronbach's α)였다. 아동기 외상 질문지 척도의 구성 내용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2> 와 같다.

< 표 2 > 아동기 외상 질문지 구성 내용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학대 방임	1,2,3,4,5	5	$a=.75$
	*6,*7,*8,*9,*10	5	$a=.93$
전체	10문항		

* 는 역채점

(2)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척도

강경아 등(1998)이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폭력 척도를 번안한 척도로 신혜영과 최해림(2003)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9문항과 방임과 관련한 10문항 등 모두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정서적 학대 문항은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멍청한 것, 후레자식, 개만도 못한 것 등의 욕을 들었던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적 방임의 경우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마음대로 늦게 귀가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점(전혀 없었음)부터 4점(자주 있었음)까지의 Likert 척도로 19점에서 76점까지의 점수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빈번하게 노출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 경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 방임 경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척도의 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 표 3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척도 구성 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학대	1,2,3,4,5,6,7,8,9	9	$\alpha=.88$
방임	10,11,12,13,14,15,16,17,18,19	10	$\alpha=.89$
전체	19문항		

2) 사회불안 척도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는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한다(Mattick, 1998). 모두 19 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김향숙(2000)에 의해 타당화 및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Cronbach's α)였고 김향숙(2000)의 연구에 사용된 것에서 일부 문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SADS)

사회적 불안 및 회피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는 Watson 등(1969)이 개발한 것을 최정훈과 이정운(1997)이 번안한 것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와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 회피 경향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 하여 최하 28점에서 최고 140점의 점수를 가질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성향이 높은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호작용 불안의 경우 .91(Cronbach's α), 회피는 .90(Cronbach's α)이었다. 본 연구는 최희숙(2007)의 연구에 쓰인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사회적 불안 및 회피척도의 구성 내용 및 신뢰도는 < 표4 > 와 같다.

< 표 4 > 사회적 불안 및 회피척도 구성 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상호작용 불안	*1,2,*3,*4,5,6,*7,8, *9,*10,11,12,*13,14	14문항	$\alpha=.91$
상호작용 회피	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	14문항	$\alpha=.90$
전체	28문항		

*는 역채점

3) 성인애착 척도

Brennan 등(1998)은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자기-타인의 두 표상 차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이는 Ainsworth(1978)의 영유아 애착 유형의 하나인 회피애착 유형(anxious/ avoidant)을 거부-회피형과 두려움-회피형으로 나눈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4유형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Brennan등(1998)은 기존의 애착 척도 60여 가지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바탕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친밀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ECR)를 제작 하였다. 후에 성인애착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ECR을 토대로 ECR-R을 제작 하였다(Brennan, 2000). 친밀관계 경험검사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문항은 자기 표상과 관련된 문항인 애착불안 차원이며,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부터 7점(매우 동의한다)의

Likert척도이다. 18 문항은 타인 표상과 관련된 문항으로 애착회피 차원이다. 하위 요인별로 각각 18점에서 126점까지의 점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 애착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현(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신뢰도는 신지욱(2006)의 연구에서 애착회피 차원은 .88(Cronbach's α), 애착 불안 차원은 .91(Cronbach's α)이었다.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 차원의 신뢰도는 .89(Cronbach's α), 애착 불안차원의 신뢰도는 .89(Cronbach's α)였다. 친밀관계 경험 검사의 구성 내용과 신뢰도는 <표 5>에 제시 하였다.

< 표 5 > 친밀관계 경험 검사 구성 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애착 불안	2,6,8,10,12,13,14,*15,17,20,21,22, *23,24,25,26,31,36	18	$\alpha=.89$
애착 회피	1,*3,4,*5,7,9,11,16,*18,19,27,28, *29,30,*32,*33,34,*35	18	$\alpha=.89$
전체	36문항		

*는 역채점

4.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for Windows를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주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각 변인(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성인애착,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불안, 그리고 성인애착을 각각의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각 변인에 대한 총점을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중 외현화된 학대인 정서적 학대 차원은 가능한 최고 점수가 76점인데 본 연구의 전체 평균은 20.05점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20.01점, 여성의 경우 20.07점이었다. 정서적 학대 중 방임 차원의 경우 가능한 최고 점수가 40점인데 본 연구의 전체 평균은 21.86점, 남성의 경우 22.33점, 여성의 경우 21.58 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불안의 경우 상호작용 불안과 사회적 회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두 차원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의 두 하위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역시 성별에 따라 뚜렷한 구분은 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표 6 > 에 제시하였다.

< 표 6 >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단위 : 명(%)

	전체	남자	여자	<i>t</i>
	(N=478)	(N=181)	(N=297)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정서적 학대	20.05 (6.64)	20.01 (6.99)	20.07 (6.43)	-.106
방임	21.86 (7.97)	22.33 (8.69)	21.58 (7.50)	.996
상호작용 불안	84.00 (21.12)	84.33 (23.64)	83.80 (19.48)	.265
사회적 회피	35.21 (9.65)	34.76 (10.62)	35.49 (9.03)	.422
애착불안	61.24 (17.95)	61.12 (18.75)	61.32 (17.47)	-.119
애착회피	58.79 (16.78)	59.38 (18.31)	58.44 (15.79)	.594

2.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변인은 $p < .01$ 수준에서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경우 정적 상관($r = .225, p < .01$)을 보였다. 그리고 애착불안($r = .658, p < .01$) 및 애착 회피($r = .718, p < .01$) 역시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차원에서 불안정할수록 사회불안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변인간 상관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 표 7 > 과 같다.

< 표 7 >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 불안,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상관관계

변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불안	애착불안	애착회피
아동기 정서적 학대	1			
사회불안	.225**	1		
애착불안	.220**	.658**	1	
애착회피	.175**	.718**	.561**	1

** $p < .01$

3.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으므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8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48, p < .001$)

4.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성인애착의 두 하위 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각각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점수를 z 점수화 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중심화기법(zero-centering(홍세희, 2005))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독립변인의 1단계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투입하고, 2단계에 조절변인이라 가정한 성인애착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변수,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애착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인애착을 자기와 관련한 애착불안 차원과 타인과 관련한 애착회피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1)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애착불안 차원이 사회불안에 대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 1단계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25.483, p < .001$)와 2단계의 애착 불안 차원($\Delta F=186.299, p < .001$),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 불안의 상호작용 ($\Delta F=16.768, p < .001$)변인 역시 성인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8 > 에 제시하였다.

<표 8>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225***	.051	.051	25.483***
2	애착불안	.639***	.440	.389	329.528***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불안	.224***	.459	.019	16.768***

*** $p < .0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 의 변화량을 의미함

2)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 차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1단계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 애착회피를, 마지막으로 3단계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회피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25.483, p < .001$), 애착회피($\Delta F=476.508, p < .001$),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회피의 상호작용 변인($\Delta F=31.522, p < .001$)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225	.049	.051	25.483***
2	애착회피	.700	.524	.475	476.508***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회피	.276	.553	.030	31.522***

*** $p < .0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5.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1) 성별에 따른 애착불안의 조절효과

(1) 애착불안의 조절효과(남성)

본 연구 대상자 중 남성에 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남성의 자료를 통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15.096, p < .001$)와 애착불안($\Delta F=135.768, p < .001$)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났지만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불안의 상호작용($\Delta F=3.062, p=.082$)은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표 10 > 에 제시하였다.

<표 10> 애착불안의 조절효과(남성)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279***	.073	.078	15.096***
2	애착불안	.658***	.477	.399	135.768***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불안	.153	.486	.009	3.062

*** $p < .0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 의 변화량을 의미함

(2) 애착불안의 조절효과(여성)

여성에 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10.035, p<.01$)와 애착불안($\Delta F=190.385, p<.001$),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불안의 상호작용($\Delta F=15.451, p<.01$)의 역시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표 11 > 에 제시하였다.

<표 11> 애착불안의 조절효과(여성)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181***	.033	.033	10.035***
2	애착불안	.626***	.413	.380	190.385***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불안	.283***	.442	.029	15.451***

** $p<.0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 의 변화량을 의미함

2) 성별에 따른 애착회피의 조절효과

(1)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남성)

남성에 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15.096$, $p<.001$)와 애착불안($\Delta F=252.407$, $p<.001$),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불안의 상호작용($\Delta F=11.054$, $p<.01$)역시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표 12 >에 제시하였다.

< 표 12 >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남성)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279***	.078	.078	15.096***
2	애착회피	.758***	.619	.541	252.407***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회피	.242**	.641	.022	11.054**

*** $p<.001$, ** $p<.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 의 변화량을 의미함

(2) 애착회피의 조절효과(여성)

여성에 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Delta F=10.035, p<.01$)와 애착 불안($\Delta F=190.385, p<.001$),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애착불안의 상호작용($\Delta F=15.451, p<.01$)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표 13 > 에 제시하였다.

< 표 13 > 애착회피의 조절효과(여성)

단계	변인	β	R^2	ΔR^2	ΔF
1	아동기 정서적 학대	.181***	.033	.033	10.035**
2	애착회피	.653***	.453	.421	226.191***
3	아동기 정서적 학대 × 애착회피	.315***	.490	.036	20.850**

*** $p<.001$. ** $p<.01$

ΔR^2 는 R^2 의 변화량을 의미함.

ΔF 는 F의 변화량을 의미함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등 총 4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사회불안, 성인애착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녔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성별과 직업,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상관관계 역시 확인하였는데,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불안의 정도 또한 높아졌다. 특히 성인애착의 두 하위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비교하였을 때 애착회피가 사회불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외국과 비교하여 대인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보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불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신지옥 등, 2006)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정도는 사회불안의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교하여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Alden, Mellings, Taylor, & Laposa, 미출간; Wright et al., 2009 재인용).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있어 성인애착의 두 하위 요인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안정성 정도 각각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사회불안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 성인 애착이 안정되어있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동기 학대라는 심리적 위험요인과 탄력성(resilience)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Collishaw et al., 2007)에서 성인기 교우 관계와 연인간의 관계 안정성이 탄력성과 강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고통 받는 내담자에 대한 개입 전략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사회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더불어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에게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차원의 안정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지만 남자에게서는 애착회피 차원의 안정성만이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 기인한 사회불안에 대한 개입 시, 성별에 따라 다른 치료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남성 내담자의 경우, 자기에 대한 표상 차원인 애착불안 차원에 대한 개입 보다 타인에 대한 표상 차원인 애착회피 차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사회불안의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자기 표상 차원인 애착불안과 더불어 타인 표상 차원인 애착회피 두 차원 모두에 대해 개입하는 것도 치료적 대안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의 관계와 성인애착의 조절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서적 학대가 여러 유형의 아동 학대 중 경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Barnet, Miller-Perrin, & Perrin, 2005)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피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아동기 학대 관련 연구 대상은 학대의 유형을 불문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결과가 심한 부적응을 초래한 경우나 기관이 개입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직장인 등 비교적 사회적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에 선정하여 비임상군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어떠한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사회불안으로 인해 개인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매우 크지만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점(노향희, 2008)과 정신과적 진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불안이 우울증과 알콜 중독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정신 장애(조명숙, 2001)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로 사회불안을 심리학에서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결과로 사회불안을 다룸으로써 가정 내 주 양육자와의 대인 경험이 가족 외의 다른 대인 상황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이라는 보호요인으로 인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과거에 주된 양육자와 병리적 관계를 경험하였더라도 현재 친밀한 대상과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새로운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체계를 갖게 된다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회불안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회불안에서 성인애착을 고려하여 치료적인 개입을 할 때에는 남녀에 따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들은 18세 이상의 성인이었지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다수(84.3%)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모든 성인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고루 표집하여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측정할 때 신체 및 성적 학대 경험 여부는 측정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물리적 학대에는 정서적 학대가 수반된다(Angelika, 1991)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후속 연구에서는 물리적 학대와 동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ittenden(1985a)은 다른 유형의 학대는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하였으므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기에 대한 회고적인 보고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

정함으로써 기억이 갖는 재구성적 특성(Bartlett, 1932)의 한계로 인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대한 측정에서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가 성인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연구에서 윤리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성인의 회고적 보고가 가장 적절하다는 기존의 연구(Baker, 2009)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Baker(2009)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중단 연구를 실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기 정서적 학대로 인한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 현재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측정하고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연구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주요한 장애물이다(Angelika, 1991). 정서적 학대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Hutchison, 1990)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측정의 측면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서적 학대 질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대상인 성인의 사회불안을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발병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느낀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 및 내현화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다(Buehler and Gerard, 2002)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서적 학대로 인한 사회불안이 청소년기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정서적 학대가 사회불안을 유발하는지와 함께 교사나 또래와의 애착을 다루어 애착을 통한

최초 개입 시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불안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대인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관적 교류 상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비유관적 교류 상에서 경험하는 불안 모두를 포함하기도 한다(Leitenberg, 199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성인애착을 가정함으로써 유관적 교류 상황과 비유관적 교류 상황을 분리하여 가정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하위 차원과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간의 상관관계 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사회불안과 성인애착의 불안정성이 다른 구성 개념인가에 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대적 영향 및 그 두 변인 사이의 경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신지욱 등, 2006)를 고려할 때,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을 유관적 관계와 비유관적 관계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정(1999). 사회공포증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노향희(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미란(2003).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윤경(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

문

보건복지부(200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송은혜(2006). 애착, 대처방식, 희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상담

심리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지옥(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

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지옥, 방혜정(2006). 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 :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78-279

신혜영(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 초등학

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기은(2009). 대학생의 성인애착,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유경(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증상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나(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수진(2007).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공변량 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장건희(2007). 자기애와 자기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조현(2004).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혜인(2003).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97년도 연차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정민현(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은정(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채은영(2001).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경숙(2006).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 최정훈, 이정윤(1994). 사회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

- 회: 상담과 심리치료,6(1), 21-46
- 최희숙(2007). 육군 병사의 애착 유형, 스트레스 대처 및 대인 불안의 관계.
- 한혜림(2003).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 수준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호유나(2004). 청소년의 가족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insworth, M.D.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M. Caldwell, & H.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3, p.1-9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D.S., & Bell, S. M.(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strange situation. In B.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4(pp.111-136). London : Methuen.
- Ainsworth, M.D.S.(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Alden, L. E. (2001). Interpersonal perspectives on social phobia. In R. Crozier, & L. E. Alde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pp. 381.404). United Kingdom7 John Wiley & Sons.
- Alden..L.E. &Taylor C.T.(2004) .Interpersonal processes in social phobia .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857 - 882.
- Alden.L. E., Mellings, T. M. B., Taylor, C. T., & Lapsa, J. M. (2004).

Social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Manuscript in preparation (Wright, 200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ta, M.C., Langhinrichsen-Rohling,J., & Bowers, D., & O'Brien, N. (2007). Differential correlates of multi-type maltreatment among urban youth. *Child Abuse & Neglect*, 31, 393- 415
- Baker, A. J. L. (2009). Adult recall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Definitinal strategies and challeng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703-714.
- Batholomew, K., & Horowitz.L.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rnet, O., Miller-Perrin, C. L., & Perrin, R. D. (2005). Child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O. Barnet, C. L. Miller-Perrin, & R. D. Perrin (Eds.),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n introduction* (2nd ed., pp. 151-17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ehl, L. E., Conyngham, H. A., & May, P. F. (2003). Trends in child maltreatment literature. *Child Abuse & Neglect*, 27, 215-229.
- Beidel, D,C,, Turner, S.M, & Dancu, C.V.(1985). Psych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 Res. Ther*,23(2), pp.109-117.
- Benjamin, L. W. (1993).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rman, W.H., Marcus, L., & Berman, E.R. (1994). Attachment in marital relations. In M.B. Sperling & W.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 (pp. 204–23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inggeli, N. J., Hart, S. N., & Brassard, M. R. (2001).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The APSAC study guides 4*. Thousand Oaks, CA: Sage.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ssard, M. R., Germaine, R., & Hart, S. N. (Eds.).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ew York: Pergamon.
- Brassard, M.R., & Hart, S.N. (Eds)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ew York: Pergamon Press.
- Braver, M., Bumberry, J., Green, K., & Rawson, R. (1992). Childhood abuse and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52–257.
- Brennan, K.A., Clark, C.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A. Simpson & W.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90). Open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Their role i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R.A. Thompso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Sociemotional development (pp. 57-113)

- Briere, J., & Scott, C. (2006).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s, and treatment*. Thousand Oaks, CA: Sage.
- Briere, J., & Runtz, M.(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 363.
- Briere, J.,&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0
- Burgess, R.L. & Conger, R. P.(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ed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164-1173.
- Cassidy,J.(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Cicchetti, D., & Nurcombe, B. (Eds.). (1991).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special issue: Defining psychological maltreatment: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icchetti, D., & Toth, S. L. (2000). Developmental processes in maltreated children. In D. J. Hanse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Child maltreatment* (pp. 85-160).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lark, D.M.& Wells, A.(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R. Libowitz, D.A. Hope & F.R. Schneier(Eds.).*Social phobia : di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 69-93).New

York: Guilford Press.

- Collins, N. I.,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2), 153-166.
- Cooper, M.L., & Read P.R., & Collins, N.L.(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74-483.
- Crittenden, P., & Ainsworth, M.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432-463).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Paul, J., & Arruabarrena, M.I.(1995).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d physic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 Spain. *Child Abuse & Neglect*, 19, 409-418.
- Editorial(Child Abuse & Neglect, 2009).The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on development: (Mal)adaptat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 *Child Abuse & Neglect* ,33, 19-21.
- Egeland, B. (2009). Taking stock: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Abuse & Neglect*, 33, 22-26.
- Egeland, B., & Sroufe, L. A. (1991).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 Egeland, B., Sroufe, L.A., & Erickson, M. (1983). The developmental c

- consequences of different pattern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7, 459-469
- Ethier L.S., Lemelin, J, & Lacharite, C.(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 Neglect*, 28, 1265-1278
- Ferguson, K.S., & Dacey, C.M.(1997). Anxiety, depression, and dissociation in women health care providers reporting a history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 941-952
- Feeney, J.A.(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 Cassidy & P.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55-377) New York: Guilford Press.
- Fenny,J.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67(3), 430-445. Guilford Press.
- Feiring, C. (2005). Emotional development, shame, and adaptation to child maltreatment. *Child Maltreatment*, 10, 307-310.
- Fisher, J., & Crandell, L.(2001). Patterns of relating couples. C. Clulow(Ed.),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pp.15-27). London : Brunner- Routledge.
- Garbarino,J., Guttman, E., & Selley.J.W.(1986). *The psychologically battered child*. Sanfransisco: Jossey-Bass.
- Garrison, E. G. (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 emerging focus for inquiry and concern. *American Psychologist*, 42(2), 157-159.
- Gipple, D. E., Lee, S. M., & Puig, A. (2006). Coping and dissociation among

- female college students: Reporting childhood abuse experience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9, 33-46.
- Glaser, D. (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 Neglect*, 26, 697-714.
- Glaser, K., & Prior, V. (1997). Is the term child protection applicable to emotional abuse? *Child Abuse Review*, 6, 315.-29.
- Goldberg, D.E. (1991). Don't worry. be messy. In R. K. Belew & L. B. Booker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tic Algorithms*(pp.24-30). San Mateo, Ca : Morgan Kaufmann.
- Gross, A. B., &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18, 171-185.
- Gross, R. , Olfson, M., Gameroff, M.J., Shea, S.,A.Feder, R.Lantigua, M. Fuentes, & M.M. Weissman.(2005). Social anxiety disorder in primary care.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7.161-168.
- Harper, F. W. K., & Arias, I. (2004). The role of shame in predicting adult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victims of child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 367-375.
- Hart, S., & Brassard, M. (1991). Psychological maltreatment : Progress achieved. *Developmente and Psychopathology*, 3, 61-70
- Hazan, C., & Shaver.P.(1987). Romantic love and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imberg, R.G., Hope, D.A., Dodge, C.S., & Becker, R.E. (1990). DSM-3-R subtype of social phobic: Comparison of social phobics and public speaking phobic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172-179
- Hund, A. R., & Espelage, D. L. (2006).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undergraduate females: Mediating influence of alexithymia and distress. *Child Abuse & Neglect*, 30, 393-407.
- Jellena, L.K., McCarroll, J.E., & Thayer, L. E. (2001). Child emotional maltreatment: a 2-year study of US Army cases. *Child Abuse & Neglect*, 25, 623-639 .
- Kessler, R.C., McGONAGLE, K.A., Zhao, S., Nelson, C.B.,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U., & Kendler, K.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Kieran O'Hagan (1993). *Emotional and Psychological Abuse of Childre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irkpatrick, L.A., & Davis, K.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Leary, M.R. (1982). Social Anxiet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 Beverly Hills, CA: Sage.

- Mattick, R.P., & Clark, J.C.(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ecurity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455-470.
- McGee, R. A., & Wolfe, D. A. (1991). Psychological maltreatment: Toward an operational defini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18.
- Moeller, T.P., Bachman, G.A.& Moeller, J.R. (1993). The combined effects of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during childhood :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for women. *Child Abuse & Neglect*, 17, 623-640.
- Morton, N. & Browne, K.D.,(1998). Theory and observation of attachment and its relation to child maltreatment: A review. *Child Abuse & Neglect*, 22. 1093-1104
- Nicholas, K.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301-306
- Pilkonis P. A., Feldman H. and Himmelhoch J. (1981) Social anxiety and substance abuse in the affective disorders. *Compreh. Psvchiar.* 22, 451-457.
- Purdon, C. , Antony, M. & Monteiro, S.& Swinson, R.P.(2001).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 *Anxiety Disorders*,15, 203-215.
- Rapee, R.M.,& Heimberg, R.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35, 741-756
- Schlenker B. E. and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 Bull.* 92.

641-649.

- Schneider, M. W. Ross, A., Graham, C., & Zielinski, A.(2005). Do allegations of emotional maltreatment predict developmental outcomes beyond that of other for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9, 512-532
- Straus, M.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 social problem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 238
- Sroufe, L.A., & Fleeson, J.(1986). Attachment and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err, L.C.(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Watkins, K.P.(1987). *Parent-child attachment: A guide to research*. New York :Garland.
- Watson D. and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 consult. Clin. Psychol.* 33, 438-447.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1, 1143-1153.
- Wekerle, C., Miller, A. L., Wolfe, D. A., & Spindel, C. (2006). *Childhood maltreatment: Advances in psychotherapy: Evidence-based practice*. Cambridge, MA: Hogrefe and Huber.
- Wenzel, A. (2002). Characteristics of close relationships in individuals with social phobia; a preliminary comparison with nonanxious

- individuals. In J. H. Harvey, & A. Wenzel (Eds.), *Maintaining and enhancing close relationships: A clinician's guide* (pp. 199–213). Mahwah,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right, M. O. (Ed.). (2007). *Childhood emotional abuse: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affecting long-term impact*. Binghamton, NY: Haworth Maltreatment and Trauma Press.
- Wright, M.O., Crawford, E., Castillo, D.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 59–68
- Yehuda, R., Halligan, S. L., & Grossman, R. (2001). Childhood trauma and risk for PTSD : relationship to intergenerational effect of trauma, parental PTSD and cortisol excre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 744–753.
- Zimbardo, P. G. (1977). *Shyness: What it is. What To Do About It*. Addison-Wesley. Reading, Mass.

ABSTRACT

The Relation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nd Social Anxiety : The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Song, Gooseul

Clinical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and social anxiety in adulthood. Adults over 18yr (n=478 ; 181[34.9%]male; 297[57.3%]female) completed questionnaire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adult attachment.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university students and the citizens in Seoul and Kyouggi-do. Total data collected were 509 copies, but 478 copies used for analysis to the exclusion of 31 copies that are filled carelessly.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17.0 Statistics Program: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and social anxiety in adulthood.

Seco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predicted social anxiety in adulthood.

Third, as hypothesized, there is the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and social anxiety in adulthood.

Fourth, it was different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of the male and female. Specifically, there was the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anxiety(self) and attachment/avoidance(others) in female, whereas not attachment /anxiety(self) in male.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imply that adult attachment c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 scientific basis for intervention in social anxiety in adulthood resulting from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childhood.

On the evidence of the finding, implication of understand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were discussed. Limitation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 for the further research were also offer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nd to help people who have social anxiety intervened effectively.

keyword : psychological maltreatment, social anxiety, adult attachment, attachment/anxiety, attachment/avoidance

부 록

부록 1. 정서적 학대 질문지

부록 2. 사회불안 질문지

부록 3. 성인애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경험과 관련된 사회 및 심리적인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며 특히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나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3월
연구자 송 구슬 拜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가 얼마나 동의하는지 보기에 √표 해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1번에서부터 "매우 동의 한다"를 의미하는 7번 까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 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다	①-②-③-④-⑤-⑥-⑦	
4	다른 사람들은 내 욕구나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①-②-③-④-⑤-⑥-⑦	
5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있을 때만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①-②-③-④-⑤-⑥-⑦	
7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②-③-④-⑤-⑥-⑦	
8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까봐 종종 걱정된다.	①-②-③-④-⑤-⑥-⑦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힘들다.	①-②-③-④-⑤-⑥-⑦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①-②-③-④-⑤-⑥-⑦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①-②-③-④-⑤-⑥-⑦	
12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①-②-③-④-⑤-⑥-⑦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 때에는 화가 난다.	①-②-③-④-⑤-⑥-⑦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 했을 때 나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그런 감정이 아닐까 봐 걱정된다.	①-②-③-④-⑤-⑥-⑦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①-②-③-④-⑤-⑥-⑦	
16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①-②-③-④-⑤-⑥-⑦	
17	다른 사람들은 나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만든다.	①-②-③-④-⑤-⑥-⑦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①-②-③-④-⑤-⑥-⑦	
1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②-③-④-⑤-⑥-⑦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①-②-③-④-⑤-⑥-⑦	
22	사람들과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①-②-③-④-⑤-⑥-⑦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	
25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①-②-③-④-⑤-⑥-⑦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①-②-③-④-⑤-⑥-⑦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①-②-③-④-⑤-⑥-⑦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①-②-③-④-⑤-⑥-⑦	
30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①-②-③-④-⑤-⑥-⑦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②-③-④-⑤-⑥-⑦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①-②-③-④-⑤-⑥-⑦	
35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①-②-③-④-⑤-⑥-⑦	
36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 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②-③-④-⑤-⑥-⑦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웬만 큼 그렇 다	상당 히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또래들과 쉽게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긴장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야기 거리를 쉽게 생각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웬만 큼그 렇다	상당 히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2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 할 때 무시 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인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요즈음(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사교적인 모임에서 나는 자주 당황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처럼 편한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체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보통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교적인 모임에서 대개는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면 나는 긴장하고 마음을 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주 마음이 불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편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남녀가 같이 있는 일상적인 모임에서 자주 신경이 예민해지고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5	사교적이어야 하는 자리는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 을 피하 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특별히 사람을 피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오면 거기에 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종종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방에 낯선 사람이 꼭 차 있을 때도 나는 거리낌 없이 들어간 다.	①	②	③	④	⑤
21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윗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나는 기꺼이 이야기 한 다.	①	②	③	④	⑤
23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파티나 친목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꺼리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교적인 약속을 피하려고 핑계를 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책임을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공식적인 사교상의 일은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사교적인 약속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이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일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어느 정도 자주 경험했는지를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없었다	드물게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나를 불렀다(예 : 똥뽕이, 멍청이)	①	②	③	④
2	우리 부모님(가족)은 나에게 "너 같은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7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가족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어머니, 아버지 혹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로부터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 해 주세요

	문항	전혀 없었다	1년에 1-2 회	1개월 1-2 회	1주 1-2 회 이상
1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멍청한 것, 후레자식, 개만도 못한 것 등의 욕을 들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너 같은 것은 죽어도 싸다", "너만 없으면 살겠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 그만두고 집안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이 웬수(원수)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꼴도 보기 싫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엄마(아빠)가 "도망가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너보다 못한 애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엄마(아빠)라고 하지도 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상처가 생기거나 아파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없었다	1년에 1-2 회	1개 월 1-2 회	1주 1-2 회 이상
11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더럽거나 떨어졌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 단추가 떨어졌거나 지퍼가 고장나도 잘 고쳐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부모님(가족)은 아침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굶고 학교에 갈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부모님(가족)은 준비물을 준비해주지 않거나 준비물 살 돈을 주지 않을 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학교에 가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7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귀든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부모님(가족)은 내가 마음대로 늦게 귀가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9	학교에 내야하는 돈을 제때에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응답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 ① 19-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세-40세 ⑤ 41세 이상

3. 응답자 직업

- ① 대학 재학 ② 대학원 재학 ③ 자영업 ④ 직장인 ⑤ 전문직 ⑥ 주부

4. (응답자가 만 18세 이전) 주된 양육자의 직업

- ① 자영업 ② 직장인 ③ 전문직 ④ 주부 ⑤ 기타 ⑥ 무직

5. 귀하께서 기억하시기에 만 18세 이전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하위 ② 중하위 ③ 중위 ④ 중상위 ⑤ 상위

※ 설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문 내용상 응답 과정에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나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연락처 : psysgs@gmail.com